놓으라고 한 이유는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5면에서 계속

세상에 나온 게 화두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인데 남한테 화두를 또 받아요? 내가 나온 게 화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상대가 있고 세상이 벌어졌고 모두가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그 소리는 하고 있죠. 그런데 내 마음 이 자체를 다스린다 하는 것은 일체를 주인공에 놓는 거죠. 다 그렇게 놓고 가다 보면 그냥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일은 일대로 하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서도 해요. 함이 없이 일을 해요.

지금 과학이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전화도 있고 뭐니 뭐니 하면서 편리하게 다 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게 없죠. 그런데 난리가 나서 전기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는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어요. 들고 다녀 봤자고요. 또 아닌 밤중에 자기라든가 자기 식구가 어떻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시급한 문제죠.

이 나 하나의 마음이, 즉 말하자면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둘로 보지 않는 분들은 그것을 퍼뜩 알아낼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있으니까 일체 만법이 다 갖추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무효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이 중생들을 조복을 받게 되면 이게 보살의 역할을 합니다. 전부 보살 역할을 하고 또 그 보살의 개수가 모자란다 하면 똑같은 보살을 수없이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이 그렇게 커서 이 허공에 꽉 차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한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닥쳐오는 대로 해결을 하지 어떻게 '요거는 닥쳐올 테니까 요걸 요렇게 하고, 저거는 안 닥쳐올 테니까, 기쁜 일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삽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죠. 그런데 부처님 법이기 이전에 우리들의 법은 닥쳐오는 대로 우리가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잘되는 것만 잘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길을 걷다가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다면 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가질 못하게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몇천만 원을 들여서 공부한 것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되는 거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해 나가다가, 즉 말하자면 자기가 구렁텅이에 빠질 때 잠깐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래야 공부를 할 때 부딪침과 감각, 촉각, 시각, 미각이나 이런 여섯 가지 모두를 다 자기가 동시에 느끼면서 해결을 하죠.

이 몸속에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조그마하니까 하등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이렇게 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꺼내 놓았는데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다 거쳐 나왔단 말입니다. 그게 거친 인연들이에요. 우리가 한때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건너뛰게 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저 아래 축생들은 그냥 먹고 살기 급해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알지 한 번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사

> 춥든 덥든
> 구름 지나가듯
> 하는 것이
> 한 철 인생입니다

람은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부처 될 가능성이 99%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 똑같이 부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사단이 많으냐? 똑같이 부처라 하더라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다르고, 하는 차원이 모두 다르고, 살아나온 기술이 다르고, 모든 게 자기의 습대로 하고들 산단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모습도, 삶도, 또 권세도 다 가지고 나오거든요. 가지고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벗어난다는 말조차 없이 그대로 내 몸에서 이 모든 생명들을 둘 아니게 조복을 받는다면,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내는 대로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라도 이 보살이 응신(應身)으로 화(化)해서 모든 걸 이익하게 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성을 하면 이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가 스스로 벌써, 모두 부하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래의 마음은 공심(共心)이다. 여래의 몸은, 즉 말하자면 공체(共體)다. 공체기 때문에 크죠. 여러분이 볼 때는 사람 하나지만 공체이기 때문에 크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용(共用)을 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안에서도 공용이요, 바깥에서도 공용입니다. 이런 얘기 곧잘 하죠. 우리가 물을 한 그릇 먹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먹은 겁니까? 이건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여기서 목마르다고 달라고 그래서 준 거예요. 줬는데, 준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나눠 먹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의식들이 이렇게 나눠 먹게 된 동기를 알게 되면 동시에 그냥 한마음이 돼 주죠.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소나무도 말을 하고 돌도 말을 하는데, 이 속에 의식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남이 볼 때는 나 혼자 먹었어요. 그런데 먹은 사이가 없다. 이 물은 내가 먹은 사이가 없이 더불어 같이 공식(共食)을 했다 이런 뜻이 나오죠. 공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먹는 것만 공식이 아니라 이 모든 거,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 공식입니다, 그게. 같이 움죽거리죠, 이 몸도. 지금 자기가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움죽거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건 모든 부서에서 작용을 해 주기 때문에 움죽거리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만 움죽거려 주지 않아도 그냥 폐인이 돼 버리고 말죠. 모두가 그렇게 움죽거려 주는 걸, 본래 그렇게 움죽거려 주고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얍삽해서 이거를 죄다 가르는 거죠. 자기 자불이 그렇게 있고 자불로 하여금 마음이 의식하고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해 주질 않으니까 같이 조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인연 받은 대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이나 팔자나 이런 거를 면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이 공부는 팔자 운명도 없고 고(苦)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고라는 건 집착만 없으면 모든 게 없어요. 집착! 집착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물을 줬으니까 저 물 대신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또 '내가 해 줬으니까 좋게 되겠지.' 하는 집착, '부처님한테 뭐를 놓았으니까 뭐가 오겠지.' 하는 이런 집착, 이런 집착들이 모두 자기를 멸(滅)하게 못해 주는 겁니다. 어차피 물을 한 그릇 떠다가 부처님한테 놓았으면,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놓았다 하면, 뭐 몇 억을 갖다 놓았다 하더라도 한 사이 없이 했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죠, 그냥. 그러니 돈보다도 수없는 이 허공을 다 준대도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준 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왜 집착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몇 알갱이나 산다고 집착을 합니까. 그리고 미워하고, '너로 인해서 망했다' 이러고…. 간혹 '너로 인해서 흥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것도 집착입니다. 모두가 집착이에요. 그래서 고 · 집 · 멸 · 도 아닙니까? 고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고라는 것은 집착이 없다면 멸한다 이런 뜻이에요. 멸하면 도다 이거예요. 간편하죠, 아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여기 걸어서 들어올 때 내 발자국을 짊어지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는데 왜 없어진 그 발자국에 집착하느냐. 없어진 발자국에 집착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살면서 그냥 '요거는 요게 잘못됐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 '이건 정말 날 무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영 없어지지 않죠. 없어지질 않는 그것이 집착이에요. 무상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우리가 '이것도 한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구나. 이것도 그런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저 이해해 주는 그런 마음…. 내 마음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남의 마음을 살펴 주는 그런 마음이라야만 되죠.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미생물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쌍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디를 들여다봐도 다 불쌍해요. 측은하고 불쌍하고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잘 먹고 잘산다 하는 집을 들여다봐도 불쌍해요. 그 속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도 더 아픈 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느 사람치고 불쌍

> 그런데 한 철을
> 어떻게 사느냐
> 어떻게 생각을 하고
> 행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게 살지 말라 이거죠. 한 철이라는 얘기죠. 발자국을 잘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 못 떼어 놓는다 해도 한 철이고 한 찰나죠. 그래서 남하고 속으로 말다툼을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하더라도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무슨 연고가 있기에 그랬겠지.' 하고 지혜롭게 마음을 써 주고 지혜롭게 내 주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풀잎 하나도 나를 옹호하지 않는 풀잎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친구고 모두가 벗이죠.

생명들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모습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수억겁을 거치면서 이렇게 굴러온 거니까요. 그렇게 왔으니까요. 줄창 그런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한 철을 이 몸속에 들어 있는 그 모습들처럼 살 때도 바로 부모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어요. 그 아픈 것은 똑같아요. 사람이 아파하는 거나 짐승이 아파하는 거나 미생물이 아파하는 거나….

그래서 구르고 구르면서 진화하고 형성되고 한 그 자체가 바로 근본이에요. 그 근본이 바로 지금 자기를 리드해 가고 이끌어 주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척 그냥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기가 산다고 하고,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하고 날뛰고 그런다면 부모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철날 때까지. 그와 같습니다, 이 마음 도리도. 얼마나 묘한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저는 옛날에 밤중에 많이 다녔어요, 산에. 그런데 그때 다닐 때도 산이든 들이든 물이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처럼 학식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고도 알았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승이 처음에는 나한테 있다가, 둘이 아니게 되면 그냥 하나가 되죠, 둘이 됐다가. 그래서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가, 둘이 됐다가 하나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혼자 있다가 누구를 만나면 둘이 되는데, 순간에 하나로 이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이어지는 반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악하게 인연을 잇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전자에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턱 보니까 내 부모 안됐던 분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안됐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보니까 이 세상에 일체 만물만생이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만물이 다 스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또 네가 속이 좁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너에게 맛 좀 보이겠다. 그걸 꼭 갚겠다. 악의로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모두가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돌아가면서…, 그래서 육도윤회라는 것도 있죠. 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 · 인간 · 천인, 즉 하늘 사람, 이렇게 치는데 지옥은, 지금 현재 갇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감옥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지옥이 없습니까, 어디 지금? 여기 이 시대에 있지. 그리고 아귀는요, 땅속에서 사는 지렁이도 보면 입은 요만한데 몸은 커서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하루 종일 먹어도 양이 차질 않는 거예요. 땅 속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전부 아귀예요, 그게. 우리가 말로 아귀 축생 뭐, 귀신 이런 다고 해서 말로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령들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갇혀서 지옥고를 겪죠. 그래서 '국내 밥내도 못 맡는다' 이런 말이 있죠. 국냄새 밥 냄새도 못 맡는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개같이 살았으면 개로 떨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축생들도 보세요. 사람하고 축생하고 같이 살면서 자꾸 윤회하면서 돌아가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9년 2월 7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 "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